

# “문화수도 지향점 1순위는 지역 활성화”

광전연 문화전당 인식 조사  
사람 중심·인권 중심 뛰어  
광주 대표 문화공간 꼽아  
지하보단 지상공간 주로 찾아  
보편적 문화공간 판단은 일러

광주 시민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29일 발표한 ‘광전연 Info’에 실린 김기근 책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광주 시민들의 문화와 문화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향해

야 할 목표에 대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문화중심도시’(37.3%)를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중심도시’(21.2%), ‘민중과 인권이 중심이 되는 문화중심도시’(18.4%), ‘아시아 문화 연구와 교류의 문화중심도시’(15.1%) 등 순이었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지난해 11월 광주 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광주시민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문화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의 의미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목적을 ‘지역 활성화’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2005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며, 앞으로 문화

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을 실질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 대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에 대한 질문에 43.6%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꼽았고,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관 35.9%, 충장로 20.7%, 문화예술회관 20.2%, 예술의 거리 15.1%, 유스퀘어 문화관 10.5%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문화전당 방문 경험이 주로 20대에 집중돼 있고, 문화전당에 대한 선호의식이 동구 주민, 고소득자, 고학력자, 문화 향유 수준이 높은 시민 등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전당이 광주 시민의 보편적 문화공간이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59.4%가 문화전당을 방

문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은 주로 거리공연 공간, 산책 공간, 하늘마당, 민주광장 등 지상에 있는 공간을 주로 찾고 있었다. 반면 어린이문화원 등 지하에 위치한 5개원의 방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전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반면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나 광주 문화도시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전당과 재조정된 5대 문화관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문화전당이 다양한 창·제작 기반을 갖춰 문화전당의 효과도 도시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기자 kroh@kwangju.co.kr



## 별교꼬막, 광주시에 통조림 200박스 기탁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별교꼬막의 서흥석 대표가 광주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2100만원 상당의 별교꼬막 통조림 200박스를 광주시에 기탁했다.

29일 오후 광주시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운영한 광주시장과 서흥석 (주)별교꼬막 대표, 김덕순 이사,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 별교의 꼬막을 광주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별교꼬막은 지난 2012년 10월 설

립된 어업회사법인으로 ‘이윤보다는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을 이념으로, 별교 꼬막의 유통과 가공, 판매를 하고 있다. 서 대표는 3대째 꼬막 양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주)별교꼬막은 지난 2016년 10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관리대상인 여수안포마을과 ‘피조개 생산 공급 계약’ 체결한 이후 피조개 통조림을 만들어 유통했다.

윤 시장은 “기증한 통조림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현천기자 chadol@kwangju.co.kr

## 안전관리 취약 29만개 시설 당정청, 국가안전 대진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강화를 논의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공인 보호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2018년 1차 회의를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 점검에 나서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농·축·수산물 공급 늘려 물가상승 막는다

### 당정, 설 민생안정 대책

다음 달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어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도 더 높아진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은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고,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할인으로 올림픽 분위기 불입=지난해 추석이 이어 오는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면은·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 통행료도 공짜다.

설 연휴에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 하는 탑승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다음 달부터 최대 30% 요금을 깎아준다.

외국인 관광객 올림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제한적 무비자 입국, 북수비자 발급 등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도 한시적으로 무비자가 허용된다.

◇비축물량 풀고 바가지요금 단속=“물가 걱정 줄이자”=정부는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방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 전에 특별 공급 기간을 설정해 수요가 많은 15개 중점 관리 품목방출량이 늘어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배추와 무는 특별 공급 기간에 평상시의 1.7배, 사과와 밤은 평시의 2.5배가 유통되도록 공급을 늘린다.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오징어, 조기, 명태 등이 중점관리품목이다. 아울러 마른고추, 감자, 오징어, 조기 등 설에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하는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와 설에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을 싸게 파는 특판장을 전국에 2231개소 운영한다. 대형유통업체는 5만~10만 원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대

50% 예약 할인 판매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지단체 등은 직거래 장터(173개), 로컬푸드 직매장(188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소(17개)를 운영한다. ◇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 27조6000억...규정 교통대책본부 가동=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27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4조 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휴 이후인 내달 26일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과 체불실태 등 점검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 ‘장성호 수변길’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 선정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장성호 수변길’을 포함한 전국 8개의 길을 2월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선정·발표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장성호 수변길의 다양한 관광 정보들은 2월 한 달 간 한국관광공사 블로그나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다. 지난해 8월 장성호 수변길 선정. ○/광주일보 자료사진

##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합헌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피하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적법)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공직선거법은 일반범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선거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벌금 100만원으로 강화해 제한한다.

이에 대해 김창중,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벌금이 선거법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불법성 및 비단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선거범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60조 1항 3호도 재판관 5(위헌)대 4(적법)로 간발의 차로 효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입야·전·답·바로 삽니다!

##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 투자자 모집

▶경/공매 입찰/낙찰 물건  
▶투자금 3억원 이상  
오전견학 H,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건물임대

| 병 원 적 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 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 면 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대물건

임 대 료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 점 도로전(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

##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양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기숙사가 완비된 신학교/200명 숙박 가능

### 광주바이블칼리지

NAVER | 광주바이블칼리지 | 검색

-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 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 대한 예수교 성서총회 인준 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여목사 제도)
-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속사적인 통찰력 가르침
- ▶ 목회사역과 현장 중심의 실재적인 수업

▶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 모집기간: 수시모집
- 모집인원: 월요반, 저녁반(월, 화), 토요일반 30명 내외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소장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접 수 처: 본교 행정실
-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신학연구과 교수진: 이현수학장 외 16명 (교수진 대부분이 합동교단 소속임)  
◆ 목회자 성경대학원 교수진: • 정용삼 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 고경태 목사 (주님의 교회)  
• 회사재 목사 (영산재교회)

▶ 광주바이블칼리지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 광주국제기독교콜lege ▶ Fax, 061-381-1367

▶ 상담문의 ▶ ☎ 061-381-0000/1365  
H, 010-3759-9774, 010-3636-9200